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의회”

202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 천 시 의 회
【 의 회 사 무 과 】

【 목 차 】

I. 출장 개요	5
II. 사전준비활동	9
III. 출장국가 개요	10
IV. 기관방문 주요내용	11
1. 비야 데 바예카스 의회	
2. 테라사 안전비상대책부	
V. 주요 시찰내용	20
VI. 출장 후기	28

- 선진 재난관리 및 문화재 보존 벤치마킹을 위한 - 2025년도 이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I 출장 개요

□ 출장 개요

- 기 간 : 2025. 9. 21.(일) ~ 9. 29.(월) 【7박 9일】
- 출장국 : 스페인
- 출장자 : 14명(의원 9명, 직원 5명)

소 속	직 급	성 명
계		14명
이천시의회	의 장	박명서
	부 의 장	김재현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의 원	박노희
	의 원	김하식
	의 원	박준하
	의 원	송옥란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의사팀장	양필웅
	주무관	황혜영
	주무관	안유라
	주무관	홍채연

□ 출장 목적

-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선진 재난관리 사례 및 운영 시스템 벤치마킹
- 스페인 지방의회 행정 운영 방식과 의회 운영 성공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천시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
- 스페인 주요 문화재를 탐방하여 관리 체계, 보존 방식, 관광 연계 전략 등을 분석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책 활용 수립에 참고

□ 주요 일정

일 자	지 역	출 장 내 용	비 고
제1일 9월21일 (일)	인천 마드리드	· 인천 출발 09:55 (비행시간 15시간 5분) · 마드리드 도착 18:00	
제2일 9월22일 (월)	마드리드	▶ 마드리드 비야 데 바예카스 의회 ■ 방문시간 : 9월 22일 10:00 ■ 주소 : Paseo Federico Garcia Lorca, 12, Vellecas, 28031 Madrid, Spain ■ 주요내용 · 마드리드시 통합 주민참여 예산시스템인 'Decide Madrid' 운영 사례 · 도시확장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균형개발 전략 벤치마킹 ▶ 프라도미술관 ■ 주 소 : Paseo del Prado, s/n, 28014 Madrid, Spain ■ 홈페이지 : https://www.museodelprado.es/e ■ 주요내용 · 작품 보존을 위한 첨단 기술 활용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시찰	
제3일 9월23일 (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 바르셀로나로 이동(약 3시간 소요) ▶ 바르셀로나 테라사 안전비상대책부 ■ 방문일시 : 9월 23일 14:00 ■ 주소 : Raval de Montserrat, 14, 08221 Terrassa, Barcelona, Spain ■ 주요내용 · 재난관리 및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 중으로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대응 자율조직 운영 및 재난정보 다국어 통합 제공 사례 벤치마킹 ▶ 세계적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성가족 성당 - 구엘공원 ■ 방문일시 : 9월 23일 16:00 ■ 주소 : Carrer de Mallorca, 401, 08013 Barcelona Spain ■ 주요내용 · 가우디의 예술·건축·자연을 융합한 건축 철학의 집약체인 성가족성당, 구엘공원을 탐방하여 이천시 도시경관 개선 및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에 활용	
제4일 9월24일 (수)	바르셀로나 몬세라트	· 몬세라트 이동(약 1시간 소요) ▶ 몬세라트 수도원 ■ 방문일시 : 9월 24일 13:00 ■ 주소 : Montserrat, 08199 Montserrat, Barcelona, Spain ■ 주요내용 · 카탈루냐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종교적 상징성을 갖춘 대표적 문화유산 시찰 · 바르셀로나에서 약 1시간 거리로 다양한 교통수단(기차, 케이블카, 산악열차)을 연계한 복합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례 벤치마킹	

	바르셀로나 세비아	· 세비아로 이동(약 1시간 30분소요)	
제5일 9월25일 (목)	세비아 론다	▶ 세비아 군사역사박물관 ■ 방문일시 : 9월 25일 10:00 ■ 주소 : Pl. España, s/n, 41013 Sevilla, Spain ■ 주요내용 · 군사 유산을 단순한 무력의 상징이 아닌, 평화와 민주주의의 역사로 재해석하여 운영하는 방식 벤치마킹 ▶ 세비아 대성당 ■ 방문일시 : 9월 25일 11:40 ■ 주소 : Av. de la Constitución, s/n, 41004 Sevilla, Spain ■ 주요내용 · 알카사르궁전, 스페인광장 등 인근 명소와 도보권 내 연계되어 도시관광동선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여 도시재생효과에 기여함 · 히랄다탑은 도시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사전예약시스템, 무료입장시간 운영, 다국어 안내서비스 제공으로 관광 효과를 높인 사례 ▶ 투우박물관 ■ 방문일시 : 9월 25일 16:00 ■ 주소 : Paseo de Colón, 12, 41001 Sevilla, Spain ■ 주요내용 ·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인 플라사 데 토로스(Plaza de Toros) 내에 위치하며 18세기부터 이어진 투우의 역사를 기록·보관하고 있음 · 18~20세기 회화 작품 및 투우사들이 경기를 앞두고 기도하는 성모마리아 예배당이 위치하여 투우의 역사·예술·종교를 아우르는 상징적 건물임	
제6일 9월26일 (금)	그라나다 코르도바	▶ 알함브라 나사르궁 ■ 방문일시 : 9월 26일 09:00 ■ 주소 : Calle Real de la Alhambra, s/n, 18009 Granada, Spain ■ 주요내용 · 일일 입장 인원 제한(시간당 약300명) 및 예약제 운영을 통해 시설 내 훼손을 최소화하며 관광객 과밀 방지로 쾌적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관리함 · 알카사바, 카를로스5세 궁전 등 인근 문화유산과 연계된 복합관광코스를 구성하여 운영중임 ▶ 메스키타사원 ■ 방문일시 : 9월 26일 16:00 ■ 주소 : C. Cardenal Herrero, 1, 14003 Córdoba, Spain ■ 주요내용 · 원래 이슬람 사원으로 건축되었다가 가톨릭성당으로 전환된 독특한 역사적 배경으로 문화적 융합의 사례로 건축적 가치가 높음 · 종교적다양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공간 운영 모델 사례 시찰	

제7일 9월27일 (토)	코르도바 푸에르토 라피세 톨레도	· 푸에르토라피세로 이동(약 3시간 소요) ▶ 벤타 델 키호테 ■ 방문일시 : 9월 27일 10:00 ■ 주소 : El Molino, 2, 13650 Puerto Lápice, Cdad. Real, 스페인 ■ 주요내용 · 스페인 대표 문학작품인 '돈키호테'의 배경지로 문학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푸에르토라피세 마을 전체가 돈키호테 테마로 꾸며져 지역브랜드화에 성공한 대표 사례 · 톨레도로 이동(약 1시간 소요) ▶ 톨레도 대성당 ■ 방문일시 : 9월 27일 14:00 ■ 주소 : Calle Cardenal Cisneros, 1, 45002 Toledo, Spain ■ 주요내용 · 성당 내 박물관을 통해 성직자 복식, 성물, 고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여 교육적 기능을 강화 · 과거 이슬람 사원이 있던 자리에 건립되어 종교적 전환과 문화융합의 역사적 상징성을 지님	
제8일 9월28일 (일)	톨레도 마드리드	· 마드리드로 이동(약 1시간 소요) · 공항으로 이동 · 마드리드 출발 20:00 (비행시간 13시간)	
제9일 9월29일 (월)	인천	· 인천 도착 16:00	

II 사전 준비 활동

□ 공무국외출장 추진을 위한 사전회의

○ 의회 주례회의

- 일 시 : 2025. 4. 14.(월) 09:00 / 2025. 5. 7.(수) 14:00
- 장 소 : 상임위원회실
- 참석자 : 14명(의원 9명, 공무원 5명)
- 안 건 : 2025년 이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국가 및 출장시기 선정
- 주요 내용
 - 선진 재난관리 및 문화보존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국가 선정에 대해 논의
 - 스페인 지방의회 등 우수 운영사례 기관 방문을 통해 선진 지방의회 운영시스템 비교시찰 및 재난대응역량 강화 목적을 수립함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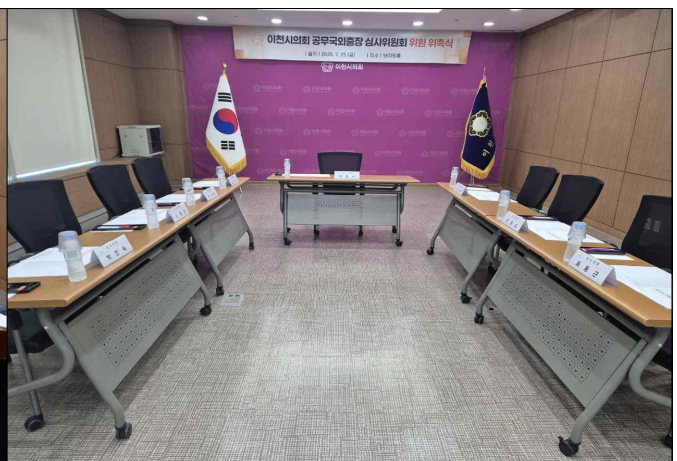
- 일 시 : 2025. 7. 25.(금) 14:00 ~
- 장 소 : 의회 브리핑룸
- 참석자 : 심사위원회 위원 7인 중 5인 참석(민간위원 전원 참석)
- 안 건 : 2025년 이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
- 회의결과 : 원안가결

○ 관련근거

-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의회 주례회의(2025. 5. 7.)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2025. 7. 25.)

III 출장국가 개요

□ 스페인

【일반현황】

- 수도 : 마드리드
- 인구 : 4,907만명(2025. 3월 기준)
- 면적 : 51만km²(한반도의 2.3배)
- 종교 : 가톨릭 94%이상
- 언어 : 스페인어(카스티야어, 공용어)
- 민족 : 라틴족 85%, 기타 약 15%
- GDP : 1조 7,314억\$(2024년)



○ 정치형태

- 국가·정부형태 : 입헌군주제(의원내각제) ※ 실질적인 행정권은 총리와 내각이 담당
- 주요인사
 - 국왕 : 펠리페6세(Felipe VI)
 - 총리 : 페드로 산체스 페레스-카스테혼 (Pedro Sánchez Pérez-Castejón)

○ 의회형태

- 의회구성 : 양원제(상원266석, 하원350석)
- 주요내용
 -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동일한 형태로 통과되어야 하며 국왕의 승인을 통해 법으로 성립됨
 - 세출 및 조세 관련 법안은 하원에서만 제안 가능

○ 주요 산업 구조

- 개요
 - 서비스업 중심 구조로 전체 GDP의 약 70% 이상을 차지함
 - 주요 산업군으로는 관광업, 제조업, 농업, 재생에너지, 제약산업 등이 있음
 - 2025년 GDP 성장률은 2.5% 내외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50.3.17.
- 교민현황 : 약 5,000명 이상(2024년 기준, 추정치)

IV 기관방문 주요내용

기관방문 비야 데 바예카스 구의회

- 방 문 일 : 2025. 9. 22.(금) 10:00
- 방문위치 : Paseo Federico Garcia Lorca, 12, Vellecas, 28031 Madrid, Spain
- 방문목적
 - 구의회 주도 정책결정과정 및 도시확장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균형개발 전략 벤치마킹
- 내 용
 - 마드리드시 21개 구 중 제18구로 마드리드시 전체 57석 중 정당별 비율에 따라 각 구에 배정되어 구성되며 정당은 국민당, 마스 마드리드, 사회노동당, 복스당 등 다당제 기반의 협치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구의회는 구청장, 코디네이터, 시민대표(의원), 행정실무조직으로 구성되며 코디네이터는 구청장과 각 부서, 시민 참여 조직 간의 업무를 조율하며 정책 실행의 실무를 담당함

■ 주요 질의 및 답변

Q. 비야데바예카스 구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나요?

A. 비야 데 바예카스 구의회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와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며, 매월 정기 회의와 4개월마다 근접 의회를 운영합니다. 시민 건의사항은 소규모 회의에서 검토된 후 구의회에서 최종 발표됩니다.

Q.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비야 데 바예카스에서는 시민들이 근접 의회와 소규모 회의(Mesa)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 가능성 검토 후 구의회에서 이를 공식 발표합니다. 정당 추천 없이도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사회의 의견이 직접 반영됩니다.

Q. 구의회의 코디네이터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A. 코디네이터는 구청장과 각 부서, 시민 대표 간의 업무를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구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이 행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민 참여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정리하고 실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각 부서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자원 배분과 일정 관리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입니다. 코디네이터는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실무적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Q. 현재 이 도시의 역점사업이나 현안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비야 데 바예카스 구의회의 역점사업은 현재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발데카브로스 도시 개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총 51,000세대의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절반은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 인구 중심의 도시 성장 수요를 고려한 교육·문화·주거 인프라 확충이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Q.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비야 데 바예카스 구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운영 방식은 먼저 주민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제안된 내용은 행정기관에서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다시 시민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어 실제로 집행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시민들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비야 데 바예카스 처럼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참여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도시 개발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구의회의 의정활동은 어떻게 시민들과 공유되고 있습니까?

A. 비야 데 바예카스 구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회의의 생중계입니다. 구의회에서 진행되는 일반 회의나 특별 회의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어 시민들이 직접 시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회 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 일정은 사전에 공개되며, 정기 회의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개최됩니다.

시민들은 이 일정에 맞춰 회의에 직접 참여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특히 근접 의회와 같은 시민 참여 채널을 통해 제안된 정책이나 건의사항은 소규모 회의에서 검토된 후, 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므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A. 비야 데 바예카스 지역은 마드리드 시에서 가장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 중 하나로, 특히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시 개발 계획인 발데카브로스 프로젝트가 핵심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51,000세대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며, 그중 절반은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 인구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시는 도시 내 유허부지를 활용한 복합 개발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도 확대하고 있으며, 비야 데 바예카스는 이러한 전략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인프라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주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도시재생사업이나 택지개발 시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A. 비야 데 바예카스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나 택지개발과 같은 주요 정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참여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참여 방식은 근접 의회와 소규모 회의입니다. 주민들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 환경, 주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은 먼저 소규모 회의에서 실행 가능성, 예산, 기간 등을 기준으로 검토되며, 이후 4개월마다 열리는 근접 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구의회에 전달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산 편성과 관련된 제안 및 투표가 가능하며, 주민들은 디지털 방식으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 주민참여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A. 비야 데 바예카스에서는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 정책과 예산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구조로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참여 방식은 근접 의회입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 환경, 주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들은 먼저 소규모 회의에서 실행 가능성과 예산, 기간 등을 기준으로 검토되며, 이후 4개월마다 열리는 근접 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구의회에 전달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산 편성과 관련된 제안 및 투표가 가능하며, 시민들은 디지털 방식으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의회 역할은 무엇인가요?

A. 비야 데 바예카스 구의회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감시와 심의, 승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의회는 행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예산을 승인합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는 각 부서의 활동과 정책 집행 현황을 감사하며, 필요 시 조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이 지역 사회의 필요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합니다.

Q. 구 의회만의 대표적 정책 성공사례나 혁신 사례가 있습니까?

A. 비야데 바예카스 구의회는 마드리드 시의 젊은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정책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그중에서도 도시 개발과 주민 참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발데카브로스 도시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비야 데 바예카스를 마드리드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개발 구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접 의회’와 ‘소규모 회의’를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소규모 회의에서 실행 가능성과 예산 등을 기준으로 검토된 후, 근접 의회를 통해 구의회에 전달되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당 추천 없이도 일반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사진자료



기관방문 테라사 안전비상대책부

- 방 문 일 : 2025. 9. 23.(화) 14:00
- 방문위치 : Raval de Montserrat, 14, 08221 Terrassa, Barcelona, Spain
- 방문목적 : 재난관리 및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 중으로 지역공동체 기반의 재난대응 자율조직 운영 및 재난정보 다국어 통합 제공 운영사례 벤치마킹
- 내 용
 - 테라사시는 기후위기에 대비해 홍수, 폭염, 화학사고 등 다중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감지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기반 실시간 시민 재난알림 시스템 구축 및 산림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자율 대응 역량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

■ 주요 질의 및 답변

Q. 테라사 지역은 주로 어떤 종류의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A. 테라사에서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다양한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염, 산불, 환경오염, 홍수, 강풍, 추위, 눈, 지진, 팬데믹 등이 주요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특히 산불은 여름철에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발생 시기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알과 계획’이라는 산불 위험 예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수위 감지 및 경고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테라사시는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예측, 예방, 계획, 정보 제공의 4단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시민과 자원봉사자,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재난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Q. 기후재난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A. 테라사시는 기후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4단계 대응 체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측 단계에서는 기상청, 수자원청, 산림 요원 등이 협력하여 폭염, 산불, 홍수, 강풍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위험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해 매일 모니터링합니다. 이어지는 예방 단계에서는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며 예를 들어 산불 위험이 높을 경우 알과 계획을 발동해 산림 접근을 제한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과 협력 체계를 수립하며 시청, 주정부, 시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 단계에서는 SNS, 문자, 실시간 지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신속히 알리는데 특히 노숙자나 반려동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대응 프로토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수위 상승 시 자동으로 차량 통행을 차단하거나 홍수 위험 지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기술 기반의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Q. 재난발생 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A. 테라사시는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다층적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지방정부, 시민, 자원봉사자, 전문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우선 카탈로니아 주정부와 테라사 시청이 중심이 되어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합니다. 여기에 시민 방위기구인 세카(SCECAT)가 최고 조정 센터로서 위험 분석과 정보 전달을 담당합니다. 산림 요원들은 매일 산불 위험도를 5단계로 측정하며 위험이 높아지면 알과 계획을 발동해 대응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테라사에는 유럽에서도 드문 산림자원봉사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산불 감시, 위험 알림, 현장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적십자사는 재난 시 대피소 운영과 주민 보호를 담당하며, 시청과 협력해 취약계층과 동물 보호까지 포함한 대응 프로토콜을 운영합니다.

Q. 산불 대응을 위한 ‘알파 계획’이란 무엇인가요?

A. 알파 계획은 산림 요원들이 매일 위험도를 측정해 1~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공원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입니다.

Q. 산림 자원봉사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산불 위험을 알리고 예방 활동을 합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시청이나 산림 관련 조직과 협력합니다. 카탈로니아 지역에서만 운영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스페인 내 다른 자치지역에서는 산불대응을 주로 소방청, 환경청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행하며 카탈로니아처럼 자원봉사자 중심의 산림 감시 체계를 갖춘 곳은 드뭅니다.

Q.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A. 테라사시와 카탈로니아 주정부에서 예산을 할애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업무차량이나 복장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Q. 재난대응역량 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A. 테라사시가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항으로 사전 예측과 정보 전달 체계의 고도화가 있습니다.

우선 재난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방 조치와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기상청, 수자원청, 산림 요원 등이 협력하여 매일 위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산불 대응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스스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SNS와 문자, 실시간 지도 등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 상황을 알립니다.

Q. 재난예방 대책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산불 발생률의 감소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큰 산불이 한 차례 발생했지만 빠르게 진화되었고 이후에는 대형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알파 계획을 통해 산불 위험도를 매일 측정하고 고위험 단계에서는 산림 접근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이 향상되었습니다. SNS와 문자, 실시간 지도 등을 통해 위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고 특히 노숙자나 반려동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프로토콜도 마련되어 있어 포괄적인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자동 경고 시스템이 도입되어 홍수 위험 시 차량 통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등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예방 중심의 접근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재난 자체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Q. 테라사는 다문화 가구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주민들을 위한 재난정보 제공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A. 테라사시는 다문화 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주민들에게도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난정보는 스페인어와 카탈루냐어 두 언어로 제공되며 대부분의 전달 수단으로 SNS와 문자 메시지를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SNS 플랫폼에 내장된 자동 번역 기능 덕분에 언어 장벽이 크게 줄어들었고 문자 메시지에는 링크를 함께 포함시켜 인터넷 접속 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어 사용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중요한 정보에 한해 아랍어 번역본을 별도로 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Q. 최근 테라사에서 있었던 주요 재난 사례와 대응 경험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최근 테라사에서는 산불과 폭우 등 기후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경험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2021년의 산불 사례와 이를 통한 대응 체계 강화가 대표적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대형 산불은 빠르게 진화되었으며 이후 테라사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알파 계획을 강화했습니다. 산림 요원들이 매일 위험도를 5단계로 측정하고 고 위험 단계에서는 시민의 산림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025년에는 4단계까지 발동된 사례도 있었으며 이는 공원 출입 금지 등 강력한 예방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주요 대응 경험은 홍수와 폭우에 대한 기술 기반 대응입니다. 테라사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수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차량 통행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은 QR 코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 내 홍수 위험 지도를 확인할 수 있어 자기방어와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사진자료



V 주요 시찰내용

1 프라도 미술관

○ 방 문 일 : 2025. 9. 22.(월)

○ 방문위치 : Paseo del Prado, s/n, 28014 Madrid, Spain

○ 방문목적 : 국립미술관의 맞춤형 교육 콘텐츠 운영 사례 및 사회적 포용 전략 시찰

○ 내 용

- 스페인의 대표적인 국립미술관인 프라도미술관(Museo del Prado)은 단순한 예술 전시 공간을 넘어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대중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 프라도미술관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빙 서비스 제공 및 관람객 중심의 콘텐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고전 회화 중심의 방대한 소장품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함으로써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국내외 관람객에게도 다양한 작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미술관 자체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포용 전략도 주목할 만하다. 프라도 미술관은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전시와 해설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의 문화복지 실현 사례로써 주목할 점이다.

■ 사진자료



○ 방 문 일 : 2025. 9. 23.(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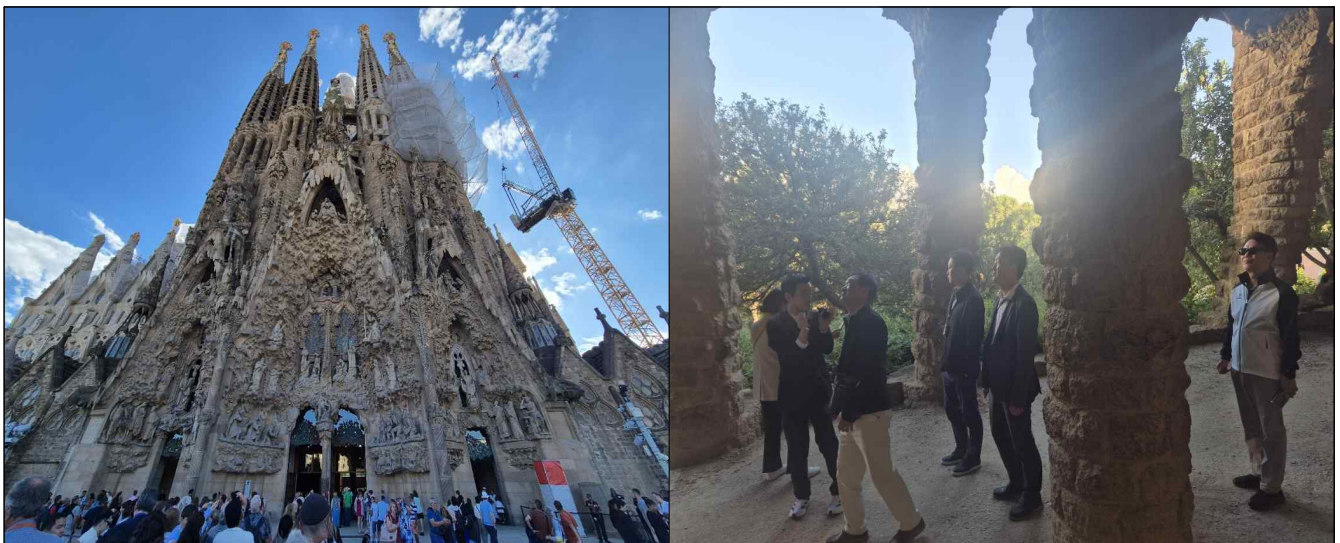
○ 방문위치 : Carrer de Mallorca, 401, 08013 Barcelona Spain

○ 방문목적 : 가우디의 예술·건축·자연을 융합한 건축 철학의 집약체인 성가족성당, 구엘공원을 탐방하여 이천시 도시경관 개선 및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에 활용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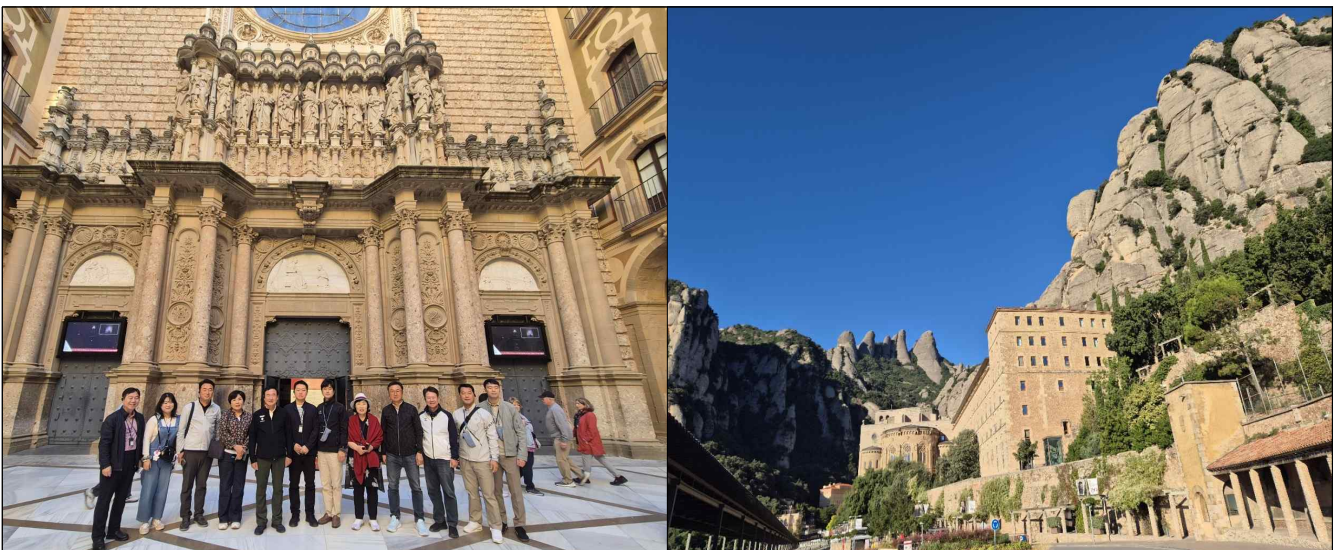
- 성가족성당은 1882년 착공 이후 140년 이상 지속된 장기 건축 프로젝트로 현재 까지도 일부 탑의 건축이 진행 중이다. 성당은 종교적 상징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춘 공간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미사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종교시설을 관광·교육·문화 콘텐츠로 확장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사례로써 참고할 수 있다.
- 구엘공원은 원래 고급 주택단지로 기획되었으나 상업적 실패 이후 1926년 공공공원으로 전환되었다. 공원은 자연지형을 살린 유기적 설계와 모자이크 장식이 특징이며, 예술성과 공공성이 결합된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2025년 기준으로 구엘공원은 시간대별 예약제를 통해 과밀을 방지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 시민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시민 친화적 운영이 돋보인다.
- 이번 방문을 통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 강화, 시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공간 조성, 장기적 관점의 문화정책 수립 등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 자산을 활용한 예술적 공간 조성과 시민 우선 접근 정책은 향후 도시 재생 및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에 있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 사진자료



- 방 문 일 : 2025. 9. 24.(수)
- 방문위치 : Montserrat, 08199 Montserrat, Barcelona, Spain
- 방문목적 : 카탈루니아 지역의 종교·문화·자연이 융합된 상징적 공간을 시찰하여 이천시의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을 연계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 활용
- 내 용
 - 몬세라트는 독특한 톱니 모양의 바위산 지형과 천주교 성지로서의 역사적 상징성을 동시에 지닌 장소로 종교·문화·자연이 융합된 복합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수도원은 11세기부터 존재해온 베네딕토회 수도원으로 ‘검은 성모상(La Moreneta)’이 안치되어 있어 스페인 전역에서 순례객이 찾는 성지로 알려져 있다.
 - 수도원 인근에는 박물관, 성가대 공연장, 기념품점, 식당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종교시설을 넘어선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수도원 성가대의 공연은 매일 정오에 열리며 ‘에스콜라니아 데 몬세라트(Escolania de Montserrat)’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년 성가대가 참여한다.
 - 이번 시찰을 통해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복합 관광지 조성, 자연지형을 보존하면서도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 구축,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존형 공간 운영 등을 확인했다. 특히 수도원 중심의 문화 콘텐츠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은 향후 이천시의 역사문화자산 활용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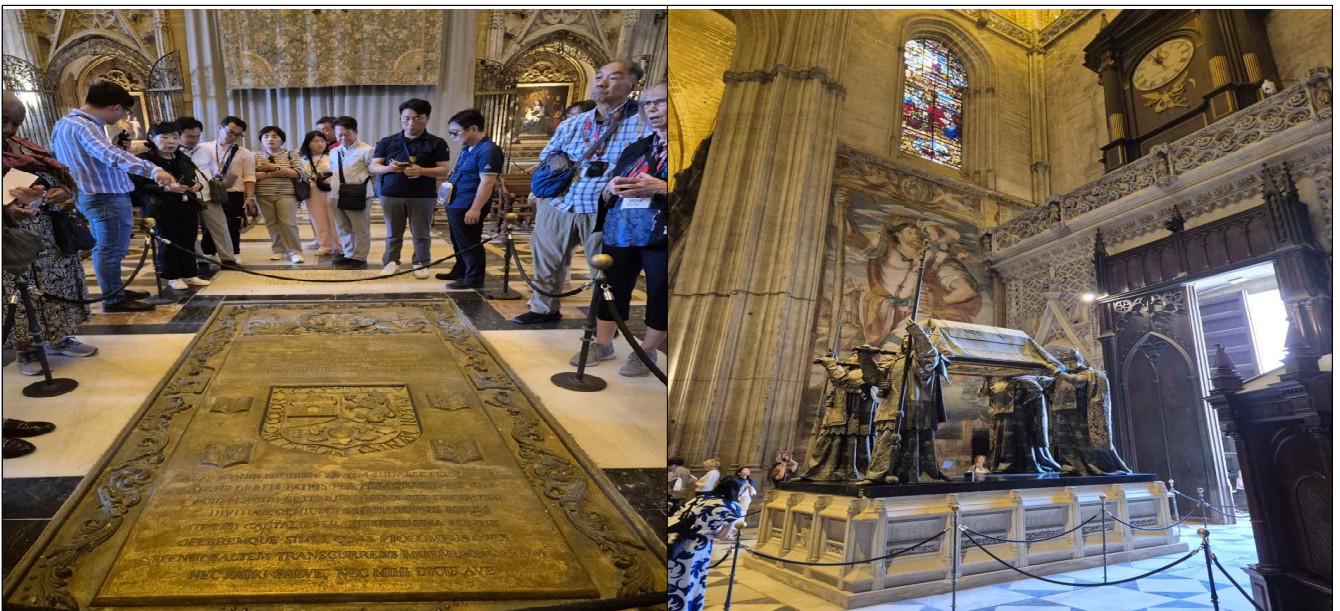
- 방 문 일 : 2025. 9. 25.(목)
- 방문위치 : Pl. España, s/n, 41013 Sevilla, Spain
- 방문목적 : 스페인의 군사문화유산 보존 및 전시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특수전 사령부, 육군 항공사령부 등이 위치한 군사도시 이천시의 지역 정체성 강화 및 군문화 콘텐츠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내 용
 - 박물관은 스페인 육군이 직접 운영하며 입장료는 무료로 개방되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전시물은 무기류, 군복, 지도, 전쟁 기록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페인의 군사적 정체성과 역사적 전환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세비야가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 출발지였다는 점에서 해상무역과 식민지 확장 과정에서의 군사적 배경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와 인터랙티브 전시를 도입하여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군사역사라는 전문 분야를 시민 교육과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 우수 사례이다.
 - 이번 방문을 통해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교육형 박물관 운영, 시민 친화적 무료 개방 정책,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시 콘텐츠 구성 등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연계한 테마형 박물관 조성은 향후 이천시 문화정책 및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 참고 사례로써 활용할 수 있다.

■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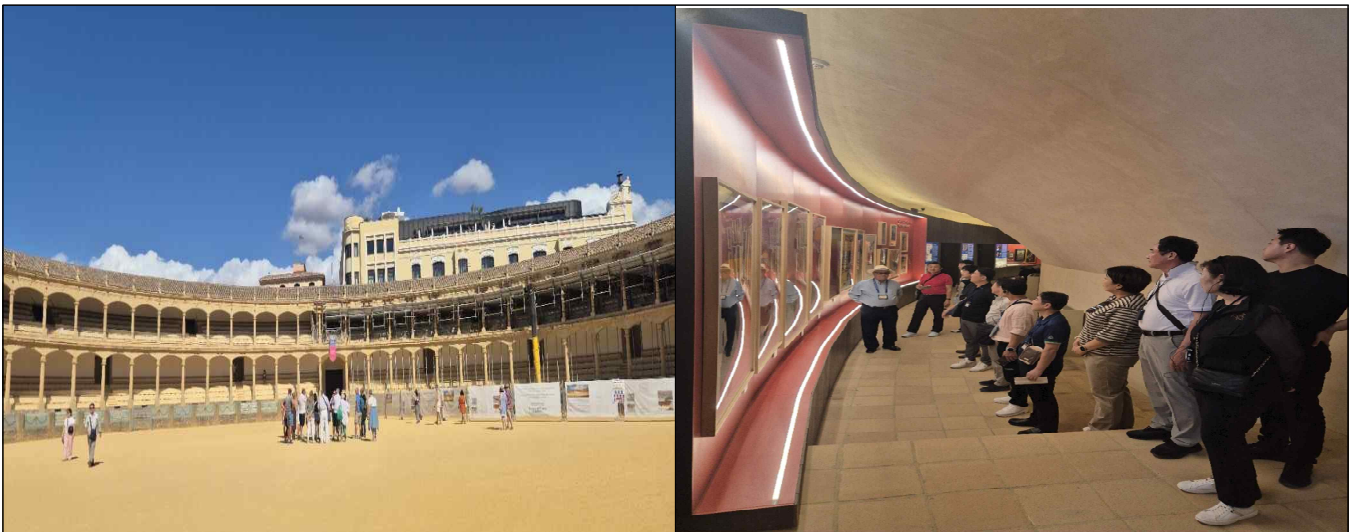
- 방 문 일 : 2025. 9. 25.(목)
- 방문위치 : Av. de la Constitución, s/n, 41004 Sevilla, Spain
- 방문목적 : 세계 최대 규모의 고딕 양식 성당인 세비아 대성당을 탐방하여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활용 사례와 종교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이천시의 전통사찰, 향교, 근대 문화유산 등 지역 내 역사문화자산 개발에 참고하고자 함
- 내 용
 - 세비아 대성당은 15세기 초 이슬람 사원이었던 알모하드 모스크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건축되었으며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세비아 대성당은 약 80개의 소성당과 정교하게 제작된 제단, 햇빛을 활용한 스테인드글라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무덤 등 역사적 상징물이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성당 옆에 위치한 히랄다탑(Giralda Tower)은 원래 이슬람 사원의 구조물이었는데 현재는 성당의 종탑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이곳의 종교·역사유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강화, 문화자산의 관광 콘텐츠화 및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존형 공간 운영 등이 돋보였다. 특히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한 관람객의 분산 운영, 역사적 인물과 공간을 연결한 콘텐츠 구성은 이천시가 주목할 점이다.

■ 사진자료



- 방문일 : 2025. 9. 25.(목)
- 방문위치 : Paseo de Colón, 12, 41001 Sevilla, Spain
- 방문목적 : 스페인의 대표적 전통문화인 투우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집대성한 투우박물관을 탐방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관광자원화 전략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 내용
 - 이 박물관은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인 라 마에스트란사 투우장(Plaza de Toros de la Maestranza)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8세기 중반에 완공되었는데, 노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외관으로 세비야의 상징적 건축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박물관은 투우의 역사, 예술, 사회적 의미를 조명하는 공간으로 전설적인 투우사들의 초상화, 투우복, 무기류, 기록물 등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투우의 4단계 진행 방식에 대한 설명과 실제 경기 영상, 황소와 투우사의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는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최근에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투우문화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통문화의 보존과 현대적 해석을 병행하는 박물관의 운영 방식,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시설의 역할 등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 고유의 전통을 시각화하고 교육 콘텐츠로 확장하는 방식은 향후 이천시의 향토문화자산 활용 전략 수립에 있어 참고할 수 있다.

■ 사진자료



- 방문일 : 2025. 9. 26.(금)
- 방문위치 : Calle Real de la Alhambra, s/n, 18009 Granada, Spain
- 방문목적 :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공간 구성 방식과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사례를 탐방하여 이천시에 적용 가능한 문화경관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내용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알함브라궁전의 핵심 공간인 나사르궁(Palacios Nazaríes)은 13~14세기 나스르 왕조 시기에 건축된 이슬람 궁전으로 알함브라 내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하는 공간이다.
 - 내부 구성은 왕의 공식 업무 공간인 코마레스 궁전(Palacio de Comares), 사적인 거처인 사자의 궁전(Palacio de los Leones), 접견실 및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아라베스크 문양, 아치형 천장, 물이 흐르는 정원 등 이슬람 건축의 정수라 평가받는 특징들이 돋보였다.
 - 이번 탐방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방법, 물과 정원을 활용한 공간 설계 방식, 상징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건축 디자인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천시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 전략 수립을 위해 적극 참고할 사항이다.

■ 사진자료



- 방 문 일 : 2025. 9. 26.(금)
- 방문위치 : C. Cardenal Herrero, 1, 14003 Córdoba, Spain
- 방문목적 : 이슬람문화와 기독교 건축양식이 공존하는 세계문화유산인 메스키타 사원을 탐방하여 복합문화공간의 보존 및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 내 용
 - 메스키타는 원래 8세기 후반 건축된 이슬람 사원이었는데 이후 13세기 기독교 세력에 의해 대성당으로 전환되면서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건축물로 재탄생하였다.
 - 사원 내부는 기둥과 아치와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독특한 시각적 리듬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써 동서양 건축양식의 융합을 통해 종교적·문화적 다양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 이번 방문을 통해 종교·문화유산의 활용,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현대적 운영의 조화 측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보존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이천시의 향토 문화유산 보존 및 다문화 포용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 사진자료



- 방문 일 : 2025. 9. 27.(토)
- 방문위치 : El Molino, 4, 13640 Puerto Lapice (Autovia de Andalucia)
- 방문목적 : 스페인 문학과 지역문화가 결합된 관광자원의 운영 사례를 탐방하여 이천시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활용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내 용
 - 벤타 델 키호테(Venta del Quijote)는 스페인 대표 문학작품 『돈키호테』의 배경지 중 하나로, 라만차 지방의 전통적인 여관 형태를 복원하여 문학과 관광을 결합한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부에는 『돈키호테』 관련 전시물과 지역 특산물 판매 공간, 전통 음식점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에게 문학적 체험과 지역문화 향유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다.
 - 특히 문학적 상징성을 활용한 공간 브랜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화 전략은 이천시의 역사·문학 자산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있어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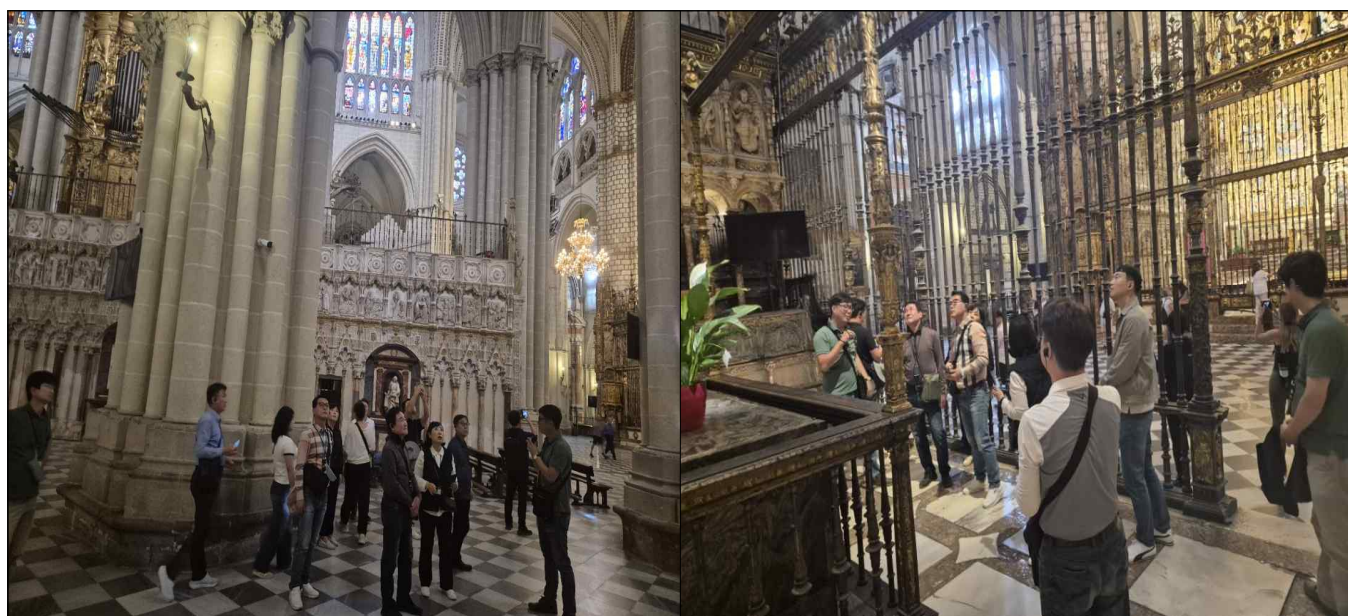
■ 사진자료



10 톨레도 대성당

- 방 문 일 : 2025. 9. 27.(금)
- 방문위치 : Calle Cardenal Cisneros, 1, 45002 Toledo, Spain
- 방문목적 : 유럽 중세 가톨릭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 성당을 탐방하여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사례를 이천시 문화정책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내 용
 - 톨레도 대성당(Catedral Primada de Toledo)은 스페인 가톨릭의 중심지로,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250년에 걸쳐 고딕 양식으로 건축된 대표적인 중세 성당이다. 스페인 내에서도 가장 위엄 있고 예술성이 뛰어난 성당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 내부에는 엘 그레코의 회화, 바로크 양식의 제단, 스테인드글라스 창, 대형 파이프 오르간 등 다양한 예술작품과 종교적 상징물이 보존되어 있으며, 성당 지하에는 주교들의 무덤과 역사적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 이번 탐방을 통해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운영 방식, 예술과 신앙이 결합된 공간 구성, 지역경제와 연계된 문화관광 전략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천시의 전통문화자산 활용 및 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할 수 있다.

■ 사진자료



VI 출장 후기

■ 보고자 : 김재현, 박명서 의원

I. 시사점 및 특이사항

스페인 현지 도시에서 보행 약자 배려를 위한 무장애(Barrier-free) 계단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2일차 공식방문지인 마드리드 Villa de Vallecas District Council을 방문하였을 때도 의회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실의 발언대를 올라가는 경로에도 턱을 없애고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본회의장 3층 방청객실에만 휠체어 전용 공간을 마련하였지만, 스페인은 장애가 있는 의원에 대한 편의시설 대비도 마련해놓았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들어 인권과 평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2024년 스페인의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인식 개선에 힘입어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사회적 참여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로 2023년에는 스페인 최초로 다운증후군 여성이 자치주 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장애인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인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페인 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신장과 사회적 통합이 제도적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이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스페인 어린이놀이터는 인공 시설물 대신 흙바닥이나 자연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보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스페인 중부 카스티야라만차 자치지방에 있는 공립 종합대학교인 UCLM 주변 놀이터에는 예전처럼 흙바닥으로 놀이공간을 조정하여 흙과 자연 소재의 바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로 충격흡수와 안전을 위해 우레탄 탄성포장재가 많이 사용됩니다. 남천공원 놀이터에도 많이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성포장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와 유치원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아이들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스페인 놀이터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중시해 흙과 유사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공간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자연 환경을 체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에서 아이들의 창의성과 정서안정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스페인 현지 도시에서는 횡단보도가 전체 도로에 도색되지 않고, 양 끝부분만 점선으로 표시된 점이 특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횡단보도 도색을 위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겠으나, 우리나라처럼 대각선 횡단보도, 바닥표시등을 활용하여 아동과 노약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환경과는 다소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남녀평등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등의 일부 그림은 절반이 치마를 입은 남성으로 디자인 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표시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이미지조차 성 고정관념을 조장한다는 인식에 따라 남녀 성평등의 상징으로 치마를 입은 남성 그림까지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II. 시정 접목방안 및 건의사항

시내 주요 거리는 차량 도로·조경 공간·자전거 도로·인도가 기능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천시에서도 스페인에서 확인된 무장애 (Barrier-free) 환경 조성은 우리 이천시 도시계획 및 시설물 설계에 매우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장애인 및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방문지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건물과 도시 공간 내 무장애 접근성 확대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휠체어 진입로 확대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강화하여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어린이놀이터 조성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흙이나 모래, 우드칩 등 자연 소재 기반의 바닥재 유지 및 확대를 추진해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하는 놀이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놀이터 안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해물질 검출 문제를 예방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시 내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스페인의 효율적인 도로 구획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횡단보도 도색 방식 등의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안전환경과 문화에 맞도록 아이들과 노약자 중심의 안전시설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성평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사례인 횡단보도 신호등 디자인 변화는 우리 시 공공시설 디자인에도 반영하여 다양성과 인권 의식을 높이는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천시는 ‘첨단미래도시’를 추구하면서, 장애인 복지와 어린이 놀이공간, 교통안전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사람 중심 도시’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정책 간 연계 강화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출장 소감

스페인 방문을 통해 다양한 도시에서 세계 각국 관광객들이 활발히 방문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 문화와 예술, 관광산업이 어떻게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의 문화예술 공간과 활기찬 상점들은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천시 역시 우리만의 역사와 자연,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필요를 실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 교통과 보행의 안전성 강화 그리고 장애를 포함한 모두가 편리한 무장애 시설 확대 등 방문지에서 벤치마킹한 선진 사례들을 지역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이바지하며, 더 나아가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활기찬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이천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 출장 개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인근 테라사 지역 등을 공식 방문하여 도시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사회 공공 공간 운영 및 지방의회 협치체계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성가족성당(사그라다 파밀리아)과 구엘공원, 그리고 테라사 시청을 중심으로 현지의 도시계획 및 행정운영방식을 파악함으로써, 이천시의 도시개발 및 공공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주요 방문 내용

첫째, 성가족성당(사그라다 파밀리아)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성당으로 200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1882년 착공 이후 14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가우디 사망 100주년인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장기 건축사업으로, 문화적 상징성과 도시계획적 통합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기적인 사업 지속 과정에서 성가족성당의 관람을 위한 관광객의 과잉으로 주민의 삶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 의견 반영과 행정허가체계 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를 조율하기 위해 별도의 시민협의회와 바르셀로나 관광위원회가 운영되었다.

그 결과 관광객의 즐거움보다 주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광모델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었고, 이러한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는 대규모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었다. 성가족성당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구도심의 역사적 경관과 현대 건축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도시유산과 관광정책의 조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천시 역시 장기간 추진되는 개발사업이나 문화시설 건립 시 시민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설봉산 일대나 전통시장 구역에서 문화유산과 현대도시공간을 조화시키는 모델을 구상할 경우 바르셀로나의 경험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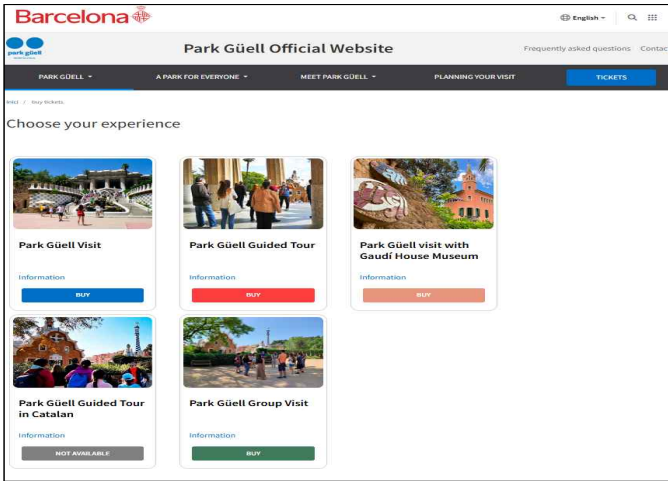
둘째, 구엘공원은 관광객 관리와 지역주민 이용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한 공공공간 운영 사례로 꼽힌다. 공원 내 일부 구역은 유료 구간으로 운영되며, 전체 입장객 규모는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제한된다. 특히 아침과 저녁 시간대를 지역주민 전용시간으로 설정함으로써 관광활동이 일상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공원관리 목표를 ‘관광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 활동 회복’에 두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방문자 흐름과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천시의 경우에도 주요 공원과 복합문화공간, 축제 운영 시 지역민 전용시간을 도입하고,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용자 흐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자연과 예술, 시민활동이 어우러지는 커뮤니티형 공원 조성 정책에 반영한다면, 주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테라사 시청 방문에서는 지방의회가 행정조직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도시정책을 조율·조정하는 시스템을 직접 관찰하였다. 테라사시는 도시재생, 환경,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 조정하는 ‘도시전략실’을 두고 있으며, 이 조직이 의회와 행정 간의 핵심 연결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의정활동에 지역사회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의회의 정책조정 기능과 시민참여 기반을 동시에 강화시킨 사례로서, 이천시의회 역시 정책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시민참여형 포럼을 활성화함으로써 행정과 의회의 협치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라사의 도시재생 전략과 스마트 교통시스템은 향후 이천시 도심재생 및 보행환경 개선정책 수립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다.

 The screenshot shows the 'Park Güell Official Website' with a navigation bar including 'PARK GÜELL', 'A PARK FOR EVERYONE', 'MEET PARK GÜELL', 'PLANNING YOUR VISIT', and 'TICKETS'. Under 'Choose your experience', there are five cards for different visit types: 'Park Güell Visit', 'Park Güell Guided Tour', 'Park Güell visit with Gaudi House Museum', 'Park Güell Guided Tour in Catalan', and 'Park Güell Group Visit'. Each card has an 'Information' link and a 'BUY' button.	 The screenshot shows the 'Ajuntament de Terrassa' app interface. It features a map of the city of Terrassa with numerous colored circular icons (red, green, blue, yellow) representing different services or points of interest. The app has a search bar at the top and a 'Accedir' button.
구엘공원 사전예약시스템 화면	테라사시 Sentilo 플랫폼 운영화면

Ⅲ. 정책적 시사점

이번 연수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장기 공공사업 추진 또는 인허가 시 시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과정에서의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둘째, 지역 중심의 공공공간 운영정책을 마련해 관광객 중심 관리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복합문화 공간 및 공원시설 등에는 주민 전용시간제나 총량제, 스마트예약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

셋째, 의회 중심의 협치 거버넌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제도화하고,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구조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과의 소통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IV. 향후 활용 방안

이번 연수의 조사내용과 정책 아이디어는 향후 시의회 정책토론회와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정책, 문화유산, 공공공간 관리 분야의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지 사례를 기반으로 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검토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통합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이번 연수에서 얻은 결과를 구체적인 정책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보고서에 주요 현장사진, 관계자 인터뷰 요약, 현지 배포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검토 시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본 연수는 이천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목표 달성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로 평가된다.

■ 보고서 : 박노희, 서학원 의원

I. 시사점 및 특이사항

마드리드 도시는 다양한 색상의 분리배출용 쓰레기통(컨테이너)을 활용하여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크고 견고한 대형 쓰레기통이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색상별로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공원이나 벤치 주변 등 일정 간격마다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어 거리에서 쓰레기를 보기 어려웠다.

또한, 수거 차량 시스템도 인상적이었다. 우리 시처럼 인력이 직접 쓰레기통을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기계를 이용해 쓰레기통 전체를 들어 올려 비우는 자동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일부 지역은 매립형 쓰레기통을 도입하여 도심 미관과 위생 관리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시민들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 의식도 매우 높았다. 재사용 습관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스페인 전체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시민 비율이 높다고 한다. 마드리드시는 새로운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 시, 홍보 포스터 및 커뮤니티 안내를 통해 시민 교육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특히, 노란색(포장재용)과 갈색(음식물용) 쓰레기통은 매일 수거하여 악취와 비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음식물 분리 활성화를 추진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참여를 통해 도시 전체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II. 시정 접목방안 및 건의사항

우리 시는 깨끗한 거리와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공공 쓰레기통을 줄이거나 없애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로 인해 거리의 전반적 청결도는 향상되었으나, 반면 시민들이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가 나무 밑이나 풀숲, 골목길 등에 몰래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청소 인력과 예산의 과도한 소모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드리드 사례처럼 필요한 위치에는 쓰레기통을 적절히 배치하여 시민들이 쓰레기를 합리적으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원, 산책로, 버스정류장 등 생활밀착형 구역에 한정하여 설치한다면 위생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 시기부터 환경보호 및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시민의식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질수록 쓰레기 투기 문제는 줄어들고, 예산과 인력의 낭비도 예방할 수 있다.

III. 출장소감

이번 스페인(마드리드) 연수를 통해 환경 관리에 대한 선진 도시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시민 의식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의 철저함, 수거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환경 의식이 인상 깊었다.

마드리드의 사례는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환경 보호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우리 시에서도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청결 도시 실현을 위한 방향을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었다.



■ 보고자 : 박준하, 김하식, 송옥란 의원

I. 시사점 및 특이사항

해외 공무연수를 가기 전부터 스페인 도시환경 가로 정책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공부한 적이 있었고,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기대에 좋은 답사가 되었습니다. 마드리드는 ‘Anda Madrid’, ‘마드리드 360 저공해구역’ 정책 등으로 도심 주요 도로의 차 없는 거리 전환, 광장(푸에르타 델 솔) 완전 보행화, 녹지축 확대, 보행 네트워크 강화 등 도시환경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실제로 시민이 일상적으로 ‘걷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방문객으로서도 걷기 좋은 도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수퍼블록(Superblocks)’ 정책을 통해 생활권 내 자동차 통행을 억제하고, 블록 내부를 보행자·자전거·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이 조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차량 소음과 매연이 줄고, 다양한 세대가 거리를 점유하는 생동감 있는 공간이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도시는 기존 교통 방식과 새로운 보행/친환경 교통수단(트램, 전기자전거, 전기차)을 상호 연계하고, 정책과 예산도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시민 체감도가 우수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최근 빈번해진 산불,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법적 보호·통합관리·중앙-지방 협력·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국제 협력이라는 여섯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한 선진형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방 중심의 접근’과 ‘재난 대응 교육의 제도화’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재난을 사후에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인식 아래, 위험 분석과 예측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약 2만 5천여 개 학교, 800만 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재난 생존 수업’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 맞춤형 재난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홍수, 산불, 지진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산업·화학사고, 원자력 사고, 위험물 운송사고 등

복합재난 대응을 포함하며, 영상·인포그래픽 등 체험형 시각 자료를 활용해 실질적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2시간, 고학년 이상은 4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허위정보 판별과 심리적 안정 훈련까지 포함된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스페인은 재난 발생 시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 피해자 재정 지원, 기업 경영 안정 지원 등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회복을 지원하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자원 배분과 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 대응은 단순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페인은 EU 및 인접국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국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을 국가 단위가 아닌 전 지구적 공동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페인의 재난 대응 정책은 ‘사전 예방, 법적 보호, 통합 관리, 협력, 데이터, 국제 연계’의 6대 축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선진형 모델로서, 우리 시의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시정 접목방안 및 건의사항

우리 이천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 및 차 없는 거리 확대, 광장 및 주요 공간 보행축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 일부를 보행도로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보행자·자전거·내부 대중교통(예: 트램, 푹버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대형 버스는 순환을 푹버스는 지선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존 도로공간의 보행자 우선 재배치 정책, 친환경 교통수단(전기자전거, 트램, 친환경버스 등)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투입, 보조금 및 인센티브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도어 투 도어) 이동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택시, 버스 보조금을 줄여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천시는 스페인의 사례를 참고하여 예방 중심, 법적 보호 강화, 통합적 관리, 협력 거버넌스, 데이터 기반 대응, 국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후 재난 위험 지역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위험지역별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시민 대상 재난 교육 및 훈련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재난 대응 교육을 정규화하거나, 지역 단위 시민 훈련 프로그램을 정례화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

시켜야 합니다. 특히 학생과 청소년 대상 교육을 강화해 미래세대의 안전 역량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난 시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 피해자 지원, 기업 지원 등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생계 안정과 사회적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중앙-지방-군-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시 행정의 분절적 대응을 방지하고, 현장 중심의 일사불란한 조치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AI·빅데이터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과학적 체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국제 재난 대응 기금 참여 및 해외 선진사례 공유, 국제 공동훈련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대응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천시의 재난 대응 정책을 국제적 표준에 맞추어 발전시킨다면, 향후 도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정 접목 방안들은 스페인의 선진 재난관리 모델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이천시가 예방에서 복구까지 이어지는 전 단계 통합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Ⅲ. 출장소감

이번 연수를 통해 거리에서 보행 환경 개선, 무장애 보행권의 확대,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이 시민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현장을 보면서, 단순히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시 인프라 조성 이상의 도시문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걷기 좋은 거리가 일상과 커뮤니티를 강화시키고, 도시환경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해준다는 점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이천시에서도 이루어진다면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천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정책과 예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